



## 동보강사 이기성이 초대하는 출판 콘서트 출판은 강통이다

‘출판은 강통이다’는 전자출판의 전설로 불리는 동보강사 이기성 박사가 출판 콘텐츠와 출판 디자인, 전자출판과 한글 코드,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쓴 지식교양서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저자 | 이기성 출판사 | 춘명 출간 | 2015년 5월 26일 인쇄 | 보진재

이기성 박사는 국내 최초로 전자출판을 학문으로 정립했고, 스마트폰에서도 모든 한글 1만 1172자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부에서 제작 보급한 문화부 서체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평생 동안 출판사, 출판단체, 출판교육에 헌신해 왔다.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시절, 컴퓨터학원을 다녀도 도무지 알기가 어려워 컴퓨터 사용을 꺼려하던 시절에 ‘컴퓨터는 강통이다’를 펴내 300만 부를 돌파하며 동보강사로 이름을 널리 알린 이기성 교수가 고회를 맞아 출판이야말로 강통이라고 강조한다.

이기성 박사는 “구름책 출판 시대를 맞아 생각해 보니 출판도 강통이다. 강통에 참치를 담으면 참치캔이 되고, 복숭아를 담으면 복숭아캔이 된다. 책에 동화를 담으면 동화책이 되고 여행 이야기를 담으면 여행책이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가치있는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를 모은 책의 내용을 종이에 출력하면 종이책이 되고, 책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면 전자책이 된다. 콘텐츠를 디스크에 저장하면 디스크책,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면 네트워크책, 모바일 서버에 저장하면 모바일책,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면 구름책이 된다.

컴퓨터에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따라 소비자의 활용도가 달라지듯이 책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따라 독자의 마음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책이라도 무엇을 담았느냐, 누가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발생한다.

### 출판·문화 이야기 직접 만든 리스본문체로 편집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아니털 시대에도 지식과 문화의 강통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담았느냐에 따라 ‘출판의 품격’이 달라진다.

이기성 박사는 “컴퓨터든 출판이든 전자출판이든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출판에 관한 아무런 지식과 정보도 없이 무모하게 출판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라며 “출판은 결코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사명감 없이는 버텨내기가 어렵다. 출판은 단기간에 체득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 실무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그동안 출판 현장에서 대학 강의

실에서 출판 실무를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출판을 가르치고, 출판을 연구하며 생각해 온 출판콘텐츠, 출판디자인, 전자출판, 한글코드 그리고 우리 문화이야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또한 이기성 박사가 직접 만든 리스본문체를 사용하고, 자간과 행간을 넓게 하고, 판면을 구성에서 땅보다 하늘(위)의 여백을 넓게 잡아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독자들이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 >> 저자 이기성은

전자출판에 관한 정보공유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출판산업에 이바지해 왔다. 현재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한국전자출판학회 명예회장, 한국콘텐츠출판학회 명예회장, 한국전자출판협회 부회장, 계원예술대학교 명예교수,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인쇄출판학과 겸임교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겸임교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체신부장관 표창, 인쇄문화의 날 특별상, 한국출판학술상 우수상, 한국출판학회상, 한국전자출판학회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